

전남

(전남 농수축산물 브랜드)

‘남도미향’ 미국서도 통했다

굴비·매실 장아찌 등 5개 제품
TV홈쇼핑 10만달러 어치 판매

전남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이 미국 TV홈쇼핑을 통해 1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미국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미향 제품 중 수출 유망품목인 굴비, 매실 장아찌, 녹차, 전통차, 한과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LA MBC 미주지사와 홈쇼핑 협약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공중과 방송을 실시했다.

이번 홈쇼핑 판매는 지난해 ‘LA 한인족제’ 직판행사에 남도미향 12개 업체가 참가해 41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LA 한인 대형마트에 고정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남도미향 제품이 미국 현지인과 LA 한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추가 시장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품목으로 판매된 진도 전통식품의 한과 제품은 고국의 정취를 그리워하는 한인 1세대는 물론 한인 2·3세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설 명절 전후 10일 동안(1월 6~7회) 판매된 고추장 굴비와 매실 제품은 이틀만에 품절돼 2차분 각 500세트를 완판하고 현재는 추가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남도미향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전남도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신뢰감을 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내달 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을 ‘해빙기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재 시공중인 212개 모든 건설공사 현장을 18개 지사와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본부와 지사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동안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약해진 지반의 절·성토구간, 절개지, 낙석지역 등 공사현장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2012년도 예산집행 진행 상황을 점검해 공사현장에서 발

생활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난발발 위험이 높은 사업현장에는 응급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품질·환경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행운 전남지역본부장은 “분기별 중점점검 항목을 지정하고 우기 대비, 하반기 종합 점검을 강화시켜 ‘인재성 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수자원학회 호남지회 정기총회·학술발표회

한국수자원학회 호남지회(지회장 이삼노)는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K-water 전남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와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학계 및 관련단체, 공직자 등 광주·전남지역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호남지회 회원들은 준공을 앞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량 및 수질개선 효과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장기적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어 회원들은 영산강 승촌보 현장을 방문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량 및 수질의 개선효과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시 물관리 대책을 청취했다.

영산강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맞게 될 K-water 이현노 영·섬통합 물관리센터장은 “앞으로 흥수통제소를 비롯해 영산강환경청, K-water, 농어촌공사 등 영산강 수계의 물 관련 기관들이 승천보·죽산보 중심으로 농업용 땅, 흥수조절지, 저류지 등의 시설을 연계해 영산강 수량 및 수질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고흥군-보성군 상생발전 손 잡았다

지역 협력사업 발굴·경계 해결 등 업무협약

보성군과 고흥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았다.

보성군과 고흥군은 22일 보성군 청 회의실에서 정종해 보성군수와 선병진 보성군의회 의장, 박병종 고흥군수, 신재균 고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우호증진, 공동 개발 도모 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듀랑만 유람선 취항, 벌교·고흥 간 진입로 확·포장, 공동 화장

장 설치 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포괄적 협력 체계가 구축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양 자체가

남해안 남중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선상근기자



봄 깨우는 사이클 질주

22일 ‘제 5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 구간인 강진군 작천면 827번 지방도로 위를 경북 상주시청 사이클 팀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와 일반부 남녀 45팀이 참가해 개인과 단체 도로, 크리티리움 경기가 펼쳐진다.

(강진군 제공)

여수 일방풍·함평 쑥·보성 참다래·장흥 생약초·나주 짚은 감 등 12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신규 선정

사업비 47억원 확보

여수 일방풍과 함평 쑥 등 도내 12개 사업이 농촌진흥청 주관의 2012년도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

22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여수 일방풍, 나주 짚은감(대봉) 가공

개발, 보성 참다래, 장흥 생약초 자원화, 강진 쌀 가공, 함평 쑥이용 상품 개발 사업 등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2013년까지 2년간 매년 20억 원씩 4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2011년도 계속사업인 담양 팔기, 구례 애생화, 고흥 한우, 장성 채소, 완도 민감류, 진도 검정쌀 등은 지난해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에도 27억원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 추진된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시·군 예전에 맞는 특성화된 작물을 발굴해 생산에서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술을 집중 지원해 지역별로 명품 농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향

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종국 생명농업기술 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2012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2012

대회 종목

코스

국제공인코스로 새롭게 개최 (시내 일원-금강 강변로-월명종합경기장)

• 일 시/ 2012. 4.28(토) 08:00

• 장 소/ 군산월명종합경기장

• 참가접수/ 2012. 1.29 ~ 3.29 까지(61일간)

www.smgmara.com

• 마라톤 사무국/ 063)452-7731, 02)416-7881

• 주최/ 군산시

대한육상경기연맹

• 주관/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

군산시체육회

• 주관방송/ MBC 문화방송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한국도로공사

군산경찰서, 군산시 육상경기연맹